

## 육계 계열화 사업 발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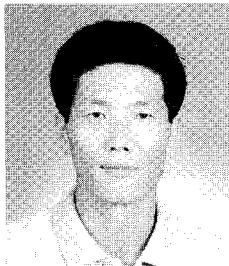
# 육계업으로 발생되는 이윤, 연구비와 고급육 개발에 재 투자를…

## 1. 계열화 사업의 필요성

육계는 병아리가 부화된 후 40여일 이내로 상품화되어 출하되는 어떻 게 보면 농업분야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생산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품목에 속한다. 이로 인해 닭고기 생산량의 증폭이 가장 클 수밖에 없으며, 가격도 예측불허로 빗나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필자가 기억하기에 초기 계열화 사업은 1967년 정부에서 해외투자촉진법의 제정에 따라 퓨리나가 계열화 사업자로 승인을 받은 이후 미미하게 명맥을 이어오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일정규모의 통합 계열화 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계열화 사업은 소수의 대형 계열화 업체들이 양성되면서 소비량에 맞는 생산의 조절, 통제 기능을 가짐으로써 폭등과 폭락으로 악순환 되어 오던 육계산업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수입물량을 흡수, 조절하는 기능을 맡아 오면서 국내 육계산업



조 광 래

(조흥농장 대표/상주 육계생산자협의회 회장)

을 주도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 2. 계열화 사업의 문제점

계열화 사업이 생산자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많은 농가에서 계열화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아직도 불완전한 통합체계, 즉 통합주체가 갖추어야 할 여건(종계, 부화, 사료, 약품, 기구, 사육, 도계, 가공, 유통, 외식부문 등)이 미비한 관계로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수평과 수직 계열화의 의미가 무색된 현재로서 수직계열화로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만은 아니다. 수평계열 형태라도 농가들에게 신임을 줄 수 있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도 대부분의 원종계와 종계는 수입에 의존하면서 아직도 부화장이 난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료, 약품, 기구 등도 일괄 공급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다 보

니 유사인티들이 유통에 참여하면서 농가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종종 있어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계열주체들이 계열농가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즉, 일부를 제외하고는 연구소와 시험소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농가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우수한 병아리 생산에 대한 투자가 미미한 실정이다. 모든 분야가 중요하겠지만 병아리는 농사의 씨앗이므로 종계장, 부화장의 위생, 관리 문제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계열농가 측면에서도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 사육관리에 충실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육시설과 환경을 개선해야 함에도 이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단열과 환기시설이 미흡할 경우 오히려 성적이 나빠져 사

양가들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농장마다 사양기술이 모두 다르고, 방역대책도 각양각색이다. 물론 농장의 위치, 규모, 시설 등이 달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과 프로그램을 외면하는 농가들도 있어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경영을 잘하고 성적을 잘 올리는 농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열악한 재정상태와 부채로 인해 경영의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3. 계열화 사업의 발전 방안

앞에서 언급했듯이 계열주체는 많은 분야에 대해 완전 계열주체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여 생산비를 낮추는 작업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열화 업체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윤을 연구비와 고급육 개발에 재 투자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시대가 변할 수록 새로운 입맛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면 닭고기 소비를 증가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제품개발에 재 투자를 함으로써 새로운 소비창출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투자는 우수한 병아리 생산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 사양가 입장에서 보면 종란내 백신투여 등 과학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우수하고 건강한 병아리 생산은 물론 원가절감에도 노력해야하는 것이다. 우수한 병아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종계장 관리가 철저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인데 과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규제가 완화된 것도 병아리 품질 저하에 영향을 주고 있는 대목이다.

농가들로서도 정립된 사양기술을 바탕으로 사양일지를 철저히 기록하여 분석하는 습관을 길러가야 할 것이며, 단열과, 환기 시설 등 계사 환경에 투자를 아껴서는 안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육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훌륭한 사육성적을 내는 것이 사업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프로정신을 갖고 업에 임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각 계열주체마다 계약서가 천차만별이다.

이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계협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육계 표준계약서가 완성단계에 있으며, 필자도 육계분과위원회 육계사육표준계약서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이번에 완성되고 있는 표준계약서는 생산자와 계열주체가 동등한 입장에서 만들어진

만큼 이를 기준으로 건전한 계약 체계가 형성되었으면 하고, 더나아가 분쟁조정위원회를 반드시 농림부 산하에 두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표준계약서가 법제화 까지 이루어져 강력하게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4. 결론

최근 국내 닭고기가 소량이기는 하지만 외국으로 수출되는 예를 종종 볼 수 있다. 출혈 수출을 하더라도 수출길이 열리면 자연적으로 육계산업이 국제대열에 합류할 수 있으며, 육계산업 또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양가들은 수출에 대비해 큰닭으로 키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인데, 정부에서 강력하게 수출육정책을 펴 나가면 생산자들은 자연적으로 이에 따라갈 수 있으며, 충분히 크게 키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육종의 발달로 도계가 편리한 속털(잔털)이 없는 병아리가 나오는 시대 아니 만큼 호흡기 등에 대비한 사양기술이 보급되어야 하고 관리 또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일반 사양가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 교과서에 나오는 사양지침대로 닭을 키우다가는 호흡기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연구기관에서도 이와같은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여 농가에 보급하는데 가일충 노력해 줬으면 한다.

이 모든 것이 계열주체와 농가들이 모두 주인의식을 가지고 협력할 경우 계열화 사업은 무궁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양계**